

3연속 1점차 승리...올림픽 첫 출전서 '태권도 여제' 등극

태권도 여자 49kg급 **김소희**

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 이어 우승
한국 선수단 7번째 금메달 안겨

김소희(22·한국가스공사)가 생애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소희는 1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파크의 카리오카 아레나3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태권도 여자 49kg급 결승에서 티아나 보그다노비치(세르비아)를 7-6으로 힘겹게 꺾었다.

이로써 김소희는 이번 대회 태권도에서 첫 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우리나라 선수단에는 7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김소희는 올림픽 출전이 처음이지만 2011년 경주, 2013년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46kg급에서 잇달아 우승한 월드 챔피언 출신이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여자 46kg급에서도 금메달을 수확한 김소희는 올림픽 무대까지 평정하며 새로운 '태권도 여제'의 탄생을 알렸다.

김소희는 이번 대회 첫 경기(16강전)에서 홀리사 디에스 칸세코(페루)를 10-2로 완파하고 순조롭게 출발했다. 하지만 이후 결승까지 매 경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대결을 벌였다.

최대 고비였던 파니파르 옹파타니카르(태국)와 8강전에서는 2-4로 끌려가다 마지막 3라운드 종료 4

초를 남겨놓고 머리 공격에 성공해 6-5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준결승전에서는 야스미나 아지즈(프랑스)와 3라운드까지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끝내 포인트제로 치러지는 연장전에서 36초를 남겨놓고 몸통 공격에 성공해 1-0으로 이겼다.

지난해 러시아 카잔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 보그다노비치와 맞선 결승도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했다.

1라운드 중반 몸통 공격에 잇달아 성공하면서 2-1로 앞선 김소희는 2라운드 중반 상대 등 뒤로 왼발로 들어 올려 헤드기어 뒷부분을 때리고 석 점을 보냈다. 3라운드에서도 먼저 점수를 냈지만 이후 소극적인 경기 운영으로 무려 7차례나 경고를 받으며 경고로만 석 점을 내줘 7-6까지 쫓겼다.

경기 종료와 동시에 김소희가 다시 매트 위에 넘어지자 보그다노비치 측에서 경고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때까지 총 9개의 경고를 받은 김소희는 경고하나만 더 받으면 10개가 돼 대회 규정상 감점패를 당하는 위기의 순간이었다.

세계태권도연맹(WTF) 관계자에 따르면 주심은 김소희의 손이 매트에 닿은 것이 경기 종료된 뒤라면서 보그다노비치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보그다노비치 측의 요청으로 비디오 리플레이를 했고, 판독관이 주심의 판정이 맞다고 확인하자 김소희는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연합뉴스



금빛 발차기 17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카리오카 아레나 3에서 열린 여자 태권도 49kg급 결승에서 김소희가 세르비아의 티아나 보그다노비치의 얼굴을 가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희 10월 전국체전 전남대표 선수로 뽑는다

전남도체육회, 훈련비 지원해 선발

생애 처음 올림픽에 출전, 금메달을 거머쥐며 '태권 여제'로 우뚝선 김소희는 올 10월 열리는 제 97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남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김소희는 충북 제천 출신으로 서울체고를 거쳐 대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소속이다.

전남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데도 어떻게 전남 대표가 될 수 있을까.

전남도체육회와 전남태권도협회의 우수 선수로

발굴할 줄 아는 '선구안(選球眼)이 한몫을 했다는 게 체육계 목소리다.

전남태권도협회는 올 해 지역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전남에 태권도 직장인팀이 없는 점을 감안, 한국가스공사 소속 김소희를 눈여겨보고 전남도체육회에 지역 대표로 선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고권은 출신지인 충북에 있지만 태권도 직장인팀(정주시청·진전군청)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지역 팀 선수를 제외하고 김소희를 대표로 선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가스공사가 위치한 대구도 별

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고 당시 김소희의 성적도 눈에 띄지 못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46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같은 해 열린 제 95회 전국체전에서는 8강에 머물렀다.

전남도체육회는 그러나 김소희를 주목, 전남태권도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영광군과 연계해 1년 간 훈련비를 지원하면서 대표로 선발했다. 김소희가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에 전남 대표로 출전하게 된 이유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태훈 銅... 태권도 대표팀에 첫 메달

김태훈(22·동아대)이 그랜드슬램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동메달로 한국 태권도 대표팀에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첫 메달을 안겼다.

김태훈은 18일 브라질 리우 올림픽파크의 카리오카 아레나3에서 열린 대회 태권도 남자 58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카를로스 루벤 나바로 발데스(멕시코)를 7-5로 꺾었다.

0-0으로 맞서던 2라운드 종료 24초를 남겨놓고 상대의 왼발을 피해 오른발로 헤드기어를 때려 석 점을 뽑아 승리를 예감했다. 3라운드에서는 만회를 위해 서두르는 상대의 몸통을 노려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가며 추격을 뿌리쳤다. 이로써 김태훈은 생애 처음 출전한 올림픽을 동메달로 마무리했다.

세계태권도연맹(WTF) 올림픽 랭킹 2위 김태훈은 첫 경기(16강전)에서 세계랭킹 46위인 18세 북명타원 한프람(태국)에게 10-12로 패해 일찌감치 금메달 도전이 무산됐다.

다행히 한프람이 결승까지 올라 김태훈은 패자부활전에 나설 수 있었다. 패자부활전에서는 사프완 카릴(호주)을 4-1로 누르고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리우올림픽에 출전하는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17일(현지시간) 오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예술리트 파크에서 열린 훈련에 참가해 후프 종목 연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지막 희망...손연재·박인비·김세영 메달을 부탁해

손연재 오늘부터 리듬체조 출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메달을 노리는 손연재(22·연세대)가 대회 첫 공식훈련을 소화했다.

손연재는 18일(이하 한국시간) 브라질 리우의 선수촌 옆 훈련장에서 루마니아 대표인 안나 루이자 피리오리아누(17)와 공식훈련에 나섰다.

손연재는 지난달 말부터 상파울루에서 러시아 리듬체조 대표팀과 현지 적응 훈련을 소화한 뒤 16일 리우에 입성했다. 브라질의 기후와 시차에 적응하기 위해서였다. 종목당 1분 30초 동안 일정한 호흡으로 연기를 펼치려면 온도와 습도 적응은 필수적이다.

이날 손연재에게 배정된 공식훈련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손연재는 먼저 꼼꼼하게 스트레칭을 하며 몸의 밸런스를 맞췄다. 수구 없이 몇몇 루틴을 소화한 손연재는 이내 수구를 꺼내 음악 없이 후프, 볼, 곤봉, 리본 손으로 연기를 펼쳤다.

피리오리아누가 프로그램 배경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는 때는 잠시 포디엄에서 물러났다. 상대방이 연기가 끝났을 때는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마스터리와 리스크 동작을 중심으로 기술표를 점검했다.

을 점검했다.

엘레나 리프도바(러시아) 코치는 손연재의 연기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리프도바 코치는 제자 중 한 명인 하야카와 사쿠라(일본)의 리우행이 좌절되면서 손연재만 전남 지도하고 있다. 신분이 한국 선수단 소속이다. 리프도바 코치의 목에는 한국 AD 카드가 걸려 있었다.

리프도바 코치는 손연재의 실수가 나왔을 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손연재는 지적을 받은 동작을 몇 차례 되풀이해서 매끄럽게 소화한 뒤에야 다음 기술로 넘어갔다.

손연재는 리본을 등 뒤로 흘러내리듯 떨어뜨려 받는 동작을 여러 차례 연습한 뒤 스트레칭을 마지막으로 연습을 마쳤다. 여전히 오른쪽 발목 상태는 좋지 않은 듯 보였다. 피지컬테라피스트 김은정 씨가 손연재의 발목에 스프레이 진통제를 분사하는 모습도 보였다.

손연재는 선수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6시 30분부터 대회 공식 경기장인 리우 올림픽 경기장에서 또 한 번 프로그램 점검을 했다. 손연재는 하루 더 공식훈련을 하고 19일 오후 10시 20분부터 개인종합 예선에 출전한다. 참가선수 26명 중 상위 10위 안에 들면 21일 오전 4시 59분부터 시작하는 개인종합 결선에 나선다. /연합뉴스

'골프 여제' 박인비 "태극마크는 부담이자 자긍심"

"가슴에 국기를 달고 플레이하는 것은 부담인 동시에 자부심이다. 한국을 대표해 정말 영광입니다."

'골프 여제' 박인비(28·KB금융그룹)는 18일(한국시간)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골프 여자부 1라운드를 공동 2위로 마친 뒤 공동취재구역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 소감을 밝혔다.

보기 없이 라운드를 마친 점이 만족스러우며 남은 3개 라운드에서도 기량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도 했다. 한국 기자들과 헤어질 박인비는 기자회견장에서 옮겨 외국 취재진의 질의에 답했다. 여기서 한 발은 한국 취재진을 만났을 때와 사뭇 달랐다.

'국가', '국기', '한국', '대표', '영광' 등 낱말을 쏟아냈다. 박인비는 오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경험을 털어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한다.

박인비는 모두 발언에서 "가슴에 국기를 달고 경기에 나서면 더 동기 부여가 되는 동시에 긴장되기

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부심을 느낀다. 올림픽처럼 항상 국민의 기대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도 피력했다.

뉴욕타임스 기사는 "한국인들은 한국 선수들이 금·은·동메달을 모두 거머쥐기를 기대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인비는 미소를 지으며 "올림픽에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한국을 대표해 뛰는 것에 압박감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기사는 세계랭킹 1위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를 의식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박인비는 "원래 플레이를 하면서 다른 선수의 스코어는 잘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도 "한국(계) 선수들이 어떤 성적을 거두는지 궁금하기는 하더라"며 우회 시인을 했다. /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골프코스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여자골프 1라운드에서 한국의 박인비가 18번홀에서 5언더파로 경기를 마친 뒤 다른 선수들의 퍼팅 중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